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7호 [루계 제23424호] 주제100 (2011)년 4월 17일 (일요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인 수리아아랍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끄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사르 알 아сад 각하

나는 귀국인민의 경사로운 민족적명절인 독립 6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천선적인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독립후 수리아인민은 아랍사회부흥당의 옮바른 령도밑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현대적인 수리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이루며 중동문제를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당신과 수리아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아울러 나라와 인민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실히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주제100 (2011)년 4월 16일

평양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꾸바공산당 제6차대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아바나

꾸바공산당 제6차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꾸바공산당 제6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귀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꾸바공산당 제6차대회가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귀당과 인민의 투쟁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미국의 악랄한 제재와 불법적 핵무기를 짓부시고 폭로써 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며 나라의 번영을 이루어가기 위한 꾸바공산당과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원성을 보냅니다.

우리는 반제반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맺어진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우의와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귀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실히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0 (2011)년 4월 16일

평양

##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리자

### 언제공사마감단계에서

### 추진

의 공사용도로들에 대한 보수

를 다그치고 새 도로들을 기

동적으로 건설하여 혼합물운

반을 원만히 보장 할수 있게

하고있다.

언제콩크리트치기가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대단한 공법들

과 창고안들이 널리 도입되

여 공사속도는 비상히 높아지

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은 콩크

리트치기가 마감단계에서 비

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군인본

때, 군인기질을 남김없이 발

휘해 나가고있다.

행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기념준비위원회, 주체사상연

자

자강도에서 부침땅면

군들에게 농업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새

땅을 더 많이 찾는 사업이 가

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깊

이 인식시켜주면서 그들이 이

사업에 앞장서도록 불려일으키

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에서는 모두가 멀찌나 새땅을

찾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올해 일곡생산을 늘이는데 적

극 이바지 할데 대한 내용의 강

연자료를 시, 군당위원회들에

내려보냈다.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는

군기판들과 협동농장들에

서 강연회와 경희국

『산을 틀림』에 대한 실호모임을 실

속있게 조직 진행하여 일군들

과 농업근로자들을 부침땅면

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로 투쟁을 세우도록 고무

추동해 주었다.

도예술선전대, 도예술단의

예술인들이 휴설된 토지를 복

구하고 새땅을 찾기 위한 투쟁

이 벌어지는 시, 군들의 협동

별을 올해 일곡생산에

서 대혁신을 일으킬

대답하고 일은 큰 목

표를 세우겠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

군들과 당원들, 근로자

들이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랑같이 멀찌나

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

게 짜고들었다. 도농군맹

위원회에서는 농근맹 조직별

사회주의경쟁을 실속있게 조

직끼면서 공사속도를 높이

고있다.

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모든

건설자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맡은 공사를 질적으

로 해 나가도록 기술적지도를

앞세우면서 그들의 혁명적열의

와 창조적극성을 불러일으키

고있다.

현대적인 양묘장을 하루빨리

건설하여 조국산천을 풍치수려

한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

려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힘

찬 투쟁에 위하여 양묘장이 완

공될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특교기자 송창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6·18 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6·18 건설돌격대 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비전장장수 박문재와 그의 안해 전혜영은 전사들의 운명과 미래도 다 맡아 보

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거문에 보답할 일념안고 백두산지구와 대규모 평원생산기지건설에 멀찌나 선 돌격대원들을 10여 차례 걸쳐 도와주었다.

지난 기간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여러 차례 받은

칠금식당 당로동자 김특설은 혁명의 성지건설을 위하여 일군과 함께 6·18 건설돌격대원들이 6·18 건설돌격대원들을 세우도록 고무하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영판, 보건경영학원 교수 강영길, 평천구역인민병원 원장 원의사 조병섭, 종구역 동안동 10인민반 전석준, 평천구역 해운 1동 35인민반 신선환은 백두산지구를 끝까지 지원하는 혁명기지원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영판, 보건경영학원 교수 강영길, 평천구역인민병원 원장 원의사 조병섭, 종구역 동안동 10인민반 전석준, 평천구역 해운 1동 35인민반 신선환은 백두산지구를 끝까지 지원하는 혁명기지원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영판, 보건경영학원 교수 강영길, 평천구역인민병원 원장 원의사 조병섭, 종구역 동안동 10인민반 전석준, 평천구역 해운 1동 35인민반 신선환은 백두산지구를 끝까지 지원하는 혁명기지원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영판, 보건경영학원 교수 강영길, 평천구역인민병원 원장 원의사 조병섭, 종구역 동안동 10인민반 전석준, 평천구역 해운 1동 35인민반 신선환은 백두산지구를 끝까지 지원하는 혁명기지원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영판, 보건경영학원 교수 강영길, 평천구역인민병원 원장 원의사 조병섭, 종구역 동안동 10인민반 전석준, 평천구역 해운 1동 35인민반 신선환은 백두산지구를 끝까지 지원하는 혁명기지원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영판, 보건경영학원 교수 강영길, 평천구역인민병원 원장 원의사 조병섭, 종구역 동안동 10인민반 전석준, 평천구역 해운 1동 35인민반 신선환은 백두산지구를 끝까지 지원하는 혁명기지원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영판, 보건경영학원 교수 강영길, 평천구역인민병원 원장 원의사 조병섭, 종구역 동안동 10인민반 전석준, 평천구역 해운 1동 35인민반 신선환은 백두산지구를 끝까지 지원하는 혁명기지원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영판, 보건경영학원 교수 강영길, 평천구역인민병원 원장 원의사 조병섭, 종구역 동안동 10인민반 전석준, 평천구역 해운 1동 35인민반 신선환은 백두산지구를 끝까지 지원하는 혁명기지원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영판, 보건경영학원 교수 강영길, 평천구역인민병원 원장 원의사 조병섭, 종구역 동안동 10인민반 전석준, 평천구역 해운 1동 35인민반 신선환은 백두산지구를 끝까지 지원하는 혁명기지원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영판, 보건경영학원 교수 강영길, 평천구역인민병원 원장 원의사 조병섭, 종구역 동안동 10인민반 전석준, 평천구역 해운 1동 35인민반 신선환은 백두산지구를 끝까지 지원하는 혁명기지원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영판, 보건경영학원 교수 강영길, 평천구역인민병원 원장 원의사 조병섭, 종구역 동안동 10인민반 전석준, 평천구역 해운 1동 35인민반 신선환은 백두산지구를 끝까지 지원하는 혁명기지원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영판, 보건경영학원 교수 강영길, 평천구역인민병원 원장 원의사 조병섭, 종구역 동안동 10인민반 전석준, 평천구역 해운 1동 35인민반 신선환은 백두산지구를 끝까지 지원하는 혁명기지원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영판, 보건경영학원 교수 강영길, 평천구역인민병원 원장 원의사 조병섭, 종구역 동안동 10인민반 전석준, 평천구역 해운 1동 35인민반 신선환은 백두산지구를 끝까지 지원하는 혁명기지원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영판, 보건경영학원 교수 강영길, 평천구역인민병원 원장 원의사 조병섭, 종구역 동안동 10인민반 전석준, 평천구역 해운 1동 35인민반 신선환은 백두산지구를 끝까지 지원하는 혁명기지원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영판, 보건경영학원 교수 강영길, 평천구역인민병원 원장 원의사 조병섭, 종구역 동안동 10인민반 전석준, 평천구역 해운 1동 35인민반 신선환은 백두산지구를 끝까지 지원하는 혁명기지원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고려의 학파학원 의사 리



#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하면 못해 낼 일이 없다

량강도의 모습이 새로워졌습니다. 혜산시가 몰라보게 변모되었습니다. 백군이 굴지의 갑자기 산지로서의 자리를 드러냈습니다.

운송강 3호발전소가 완공되어 인민들이 그 덕을 보고 있으며 해상철년광산이 진도유당한 유색금속생산기지로 전환되고 있다. 지방산업공장들이 현대화되고 인민생활향상의 토대가 더 굳어져나가고 있습니다.

전면의 뒤에는 승리자들을 이끈 선구자가 있거나입니다. 그들이 바로 도당위원회 일군들입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항일혁명선렬들이 힘승의 신념을 지니고 골탕없이 싸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사람들을 교양하여야 합니다.』

량강도당위원회 일군들은 지난 두해 남짓한 기간의 사업을 통하여 김일성同志의 위대한정신의 근본원천이며 영원한 조선의 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이 아말로 무에서 물을 창조해내는 백승의 열쇠로 뛰어난 것을 실지 체험으로 절감하였다.

시대가 바라는 위치에 자신을 세우자!

량강도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백두의 혁명정신의 체현자, 발휘자로 되어온 당에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결사奉행하는 혁명적인 투쟁기이다.

사실 몇해전까지만 해도 도안의 전반적인 경제실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은 지금처럼 혁신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년간 온 나라에 퍼져나온 대중적인 열풍 속에서 새운은 전환이 일어났다.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대고조의 제1선, 이것이

비로 우리 당일군들이 설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당책임일군이 한 이 말은 깊은 의미를 새겨주었다. 거기에는 오늘의 혁명적 대고조의 전군길에 나선 당일군들의 위치가 더없이 책임지고 중요하다고 그들의 역할에 따라 한계 단위의 전투력이 결정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백암군 미포지구에 방풍림을 조성할 때였다.

이 문제가 일정에 울렸던 지난해 초, 도당위원회 확대회의 참가한 일군들은 깜짝 놀랐다.

3월 중에 나무심기를 끝내

자는 도당책임일군의 발언에 문이었다.

해발고고 1 000m

이상이나 되는 미포지구의 등판은 4월에도 눈이 잘 녹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것으로 아울러는 5월이 되어서야 석수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면서 도당책임일군이 4월도 아니 3월에 그것도 2년

분과제에 해당한 방풍림조성 전부를 끝내자고 하였으니 왜 놀라지 않으려나?

대부분의 일군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눈설기가 한창인 4월 끝으로 시기를 놓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런 때 도당책임일군의 결심이 중요하였다. 그날의 모임에서 그는 명백히 결론하였다.

『3월 중에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일군들로부터 압력을 행사해주시다. ...』

도당책임일군의 호소는 즉흥적이 아니었다.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혁전만리를 헤친 항일혁명

투사들처럼 백두의 혁명정신으

로 살며 투쟁할 각오가 되어있

는 사람, 선령들이 피로써 물려준 그 자리에 자리를 떠나고 싶어지면서 투쟁자로 될수 있다라는 기회도

있어졌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시설은 일

군들이 자기 위치를 차지하는

가 그렇지 못한 환경을 가르는

것이다. 바로 그때 말할수 있다. 바로 그때 말할수 있다. 바로

이곳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학

습도 전투다!』라는 구호로

여기에는 그 자신이 직접 백두산

정정에도 오르고 설 향풍도 맞아

신력이 더욱더 폭발되었다.

보면서 이 사업을 설계하였다.

백암군을 하루빨리 굴지의 강

자산지로 꾸려려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이다. 대고조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번하게 있어서 그 어떤 조건부 터 앞세우는 것은 일군의 자세가 아니라고 그는 단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전투가 시작되

게 되었다. 방풍림조성사업이

시작되자 제일 먼저 전투장에

달려온 것은 신영철동무를 비롯한 도당일군들이었다. 대고조 시대가 바라는 위치, 전투장의 한복판에 자리를 정한 일군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리현 건동무를 비롯한 도당일군들은 눈발구를 터용하여 수백리의 눈눈길을 헤쳐나와 운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정을 잡고 일정을

맞춰 일

# 만민의 심장속에 끌없이 만발하는 태양의 꽃

제 13 차 김 일 성 화 축 전 장 예 시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 태양의 꽃바다, 환희의 꽃바다가 절쳐졌다.

조국과 민족, 시대와 혁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쓴 아울러 신이어서 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인류의 다양한 흠토모의 마음과 수령님을 전세계에 영원히 높이 모셔갈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절친 위인 칭송의 꽃바다이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김일성화는 주체의 해발로 세계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이며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위인칭송의 꽃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울해에 열세 번째의 난리를 뚫고 새기고 있는 김일성화축전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축전장을 찾았다.

4월의 날과 날을 끊임없이 달구며 제 13 차 김일성화축전이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김일성화경 일화전시관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 그리고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이 끌없이 찾아오고 있었다. 축전장에 만발한 태양의 꽃들을 향유한 경성속에 돌아보는 참판자들의 가슴마다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토모의 정이 세차게 끌어치고 있었다.

중앙홀에서는 불멸의 꽃들이 아름다운 꽃잎들로 활짝 펼쳐지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해빛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앞에서 오래동인 발걸음을 끊기지 못하는 참판자들.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며 회망찬 미래에 불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는 참판자들의 가슴가슴은 한없는 경쟁으로 살피어졌다.

이 땅에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절쳐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누리에 펼쳐주신 절세의 위인들을 우러러 참판자들은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담아 삶과 인사를 드리었다.

이번 축전에 무력기관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민군 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풍선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들, 외국의 천선 및 현대 성단체들, 불멸의 꽃보금후원회 회원들, 학교들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에 떠벌려 피여 난 2만상의 불멸의 꽃들이 전시 되었다는 조선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2층 전시장으로 들어섰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요람 만경대의 불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꽃바다를 펼친 전시대들은 참판자들로 하여금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차트로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뜨거운 숨결을 후덥져 안아보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에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흥대로 까지 완성하려는 인민군장병들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불멸의 꽃송이마다에 력력히 비껴있는 무력기관 전시대들이 참판자들이 이목에 끌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끝까지 높이 일떠세워 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축복해주시는 듯 환하신 미소를 지으신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끓이는 군인들의 다함없는 흠토모의 마음으로 가슴끓이는 군인들이 이어지는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전시대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맨 앞장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끌어올려 우리 인민장병들의 굳은 맹세가 드겁게 안겨왔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종다리의 지저귐 소리가 오래도록 그칠줄 몰라 백두산에서 태양절을 맞는 탐험대원들과 기상관측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백두산천지호반에 날아든 바위종다리

아침 7시경 바위종다리를 이 백두산의 장군봉에 진립된 혁명사적기념비 상공에 때를 짓어 날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이날 바위종다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아한 원을 그리기도 하며 한활동안 날아왔다. 열정의 가수련듯 하늘높이 날아온 바위종정점에서 혁명사적기념비사를 쉬임없이 오가며 청다해 우짖는 바위



